

인도 온라인 약국 시장의 성장 기회

“온라인 약국 시장이 예약과 불만 사항 관리 포함
온라인 상담, 온라인 랩 검사, 의사 진료 부문으로 확장, 통합할 가능성”



출처 : ePharmacy Expected to Penetrate 70 Million ... by 2025, Aug 24, 2020

- 글로벌 대기업인 아마존과 Reliance Industries Limited의 출시 및 인수가 1주일 이내로 다가오자 온라인 약국(ePharmacy)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
- 인도에서는 19개 주 정부들이 록다운 기간 온라인 약국을 필수적인 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코로나가 온라인 약국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
- 인도와 같은 현금 결제 시장에서는 온라인 약국 솔루션이 이상적인 방법임
- 온라인 약국은 인도의 약 900만 가정에 진출했으며, 이러한 확산의 주된 이유는 록다운
-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는 약 350만 가구가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사용했음

- 인도의 온라인 약국 부문은 현재 통합 단계로 2019년 온라인 약국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기 전, M&A가 계속되고 있음
 - 현재 Reliance가 Netmeds를 인수했고 Pharmeasy는 Medlife에 합병되었음
 -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합병, 인수,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
- 향후 Amazon Pharmacy가 인도에서 확장 전략을 펼치는 것은 지켜볼 가치가 있음
 - Amazon은 미국에서 불과 2년 만에 PillPack을 대표적인 온라인 약국으로 발전시켰음
 - 미국에서는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 대상으로 의약품을 집 앞까지 배송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, 미국 내 복약 이행(medication adherence)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
- 온라인 약국 시장은 예약과 불만 사항 관리를 포함하여 온라인 상담, 온라인 랩 검사, 의사 진료 부문으로 확장, 통합할 가능성이 있음
 - 이 경우, 데이터 보안과 환자의 안전에 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 것임
 - 하지만 적절한 규제 체제를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이행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 시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
- **(결론)** 코로나 19로 인한 락다운으로 온라인 약국(ePharmacy)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
 - 온라인 약국 부문은 꾸준히 M&A가 이루어지며 현재 통합단계에 있음
 - 미국에서 2년 만에 대표적인 온라인 약국으로 발전했던 PillPack처럼 Amazon Pharmacy가 인도에서 어떤 확장 전략을 펼칠지 주목됨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